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 미래 향한 도전 나섰다

전국기능경기대회 도내 13개 학교 65명 참가... 29일 경남 창원서 개최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미래를 향한 도전에 나섰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도내 13개 직업계고 학생 65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역 간 숙련기술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고, 범국민적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 및 저변 확산을 통한 산업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술은 단단하게 열정은 뜨겁게 Skill up 경남을 주제로 창원컨벤션센터를 비롯한 5개 경기장(김해, 진주, 사천 등 총 8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단 1,797명과 관계자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 학생들은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8일간 열전을 벌인다. 도내에서는 지난 4월 전북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선발된 학생 65명이 메카트로닉스, 용접, 산업용드론제어, CNC 밀링, 자동차차체수리, 요리 등 21개

종목에 출전한다. 한편 대회 입상자는 메달과 함께 상장과 상금을 받는다. 특히 입상자 중 일부에게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직종별 금메달 수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권을 얻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또 기량을 마음껏 펼쳐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4~25일 이틀 간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사업'의 전력변환기술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지역 기업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공학 1관 512호에서 'Open Campus' 특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전력변환기술 교육 실시

도내 기업·대학원생 대상

전주대학교는 지난 24~25일 이틀 간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사업'의 전력변환기술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지역 기업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공학 1관 512호에서 'Open Campus' 특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Open Campus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디지털 제어 DSP 실무특화교육이지만, 전력변환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실무특화교육은 디지털 제어 DSP 분야의 전문가인 (주)한국미크로칩 CAE 서한석 이사를 초청해 MCU 기술교육을 2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디지털 제어 DSP 실무특화교육에는 도내 3개 기업에서 참여한 재직자들과 전주대 전기전자공학과 대학원생 등 15명 정도 참여해 2일 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은수 교수는 "앞으로도 맞춤형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산·학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사업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 모집

내달 2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2023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공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평생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9월 2일까지 도교육청 미래인재과로 전자문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9월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11월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3년이며, 교육감이 매년 평가를 실시해 운영기관 지정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도가 학력취득에 어려움이 있던 비문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문해교육에 관심 있는 기관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해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만 18세 이상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고시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중·고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LINC 3.0사업단은 최근 드론 씬머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주대 LINC 3.0 사업단, 드론 씬머 캠프 성료

원광대·호남대·목포대·경남대 등 5개 대학 40명 학생 참여

전주대학교 LINC 3.0사업단(단장 주송)은 최근 열린 드론 씬머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전주대, 경남대, 목포대, 원광대, 호남대 등 5개 대학 40명의 학생들이 참여, 드론 축구 및 클래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LINC 3.0사업단은

2020년 7월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의회를 창설, 드론 분야 인재 양성 및 확산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송 단장은 "드론 축구와 드론 클래쉬 씬머 캠프를 매년 운영해 대학 드론 스포츠 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을"

서거석 교육감, 감사담당공무원 대상 특강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8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분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 서 교육감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적발적 감사한다는 예방적 감사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북교육의 슬로건인 '학생 중심 미래교육'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교육 정책은 학생에게 필요한가,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도 안내했다. 특히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 대전환의 화두를 감사 현장에서 구체화해 실현시켜 주길 부탁드립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감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생에게 필요한가,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도 안내했다. 특히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 대전환의 화두를 감사 현장에서 구체화해 실현시켜 주길 부탁드립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감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8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분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전북교육청, 5급 승진심사 운영 계획 예고

교육행정 15명 등 19명... 서거석 교육감 "모든 직렬에 승진기회도 골고루 줘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올해 5급 승진심사 운영 계획을 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에 따르면 2023년 5급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교육행정 15명, 시설 1명, 공업 1명, 사서 1명, 전산 1명 등 총 19명이다. 특히 이번 승진에는 직인들의 사기진작과 배려 차원에서 서 모든 직렬을 포함했다. 5급 승진대상자 선발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0%와 역량평가 80%를 반영,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감이 확정한다. 역량평가는 보고서 작성(40%), 심층면접(30%), 현장평가(10%)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평가는 9월 보고서 작성과 심층면접은 10월에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고서 작성은 업무기획과 문제 인식 및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심층면접은 국민중심적 사고와 의사소통, 조정통합 능력을 평가한다. 또 현장평가를 통해서도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리더십을 검증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역량평가는 보고서 작성(40%), 심층면접(30%), 현장평가(10%)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평가는 9월 보고서 작성과 심층면접은 10월에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고서 작성은 업무기획과 문제 인식 및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심층면접은 국민중심적 사고와 의사소통, 조정통합 능력을 평가한다. 또 현장평가를 통해서도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리더십을 검증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한편 심사대상자의 6급 재직기간 중 업무수행 실적, 청렴도 구성원과의 협력 정도 등을 검증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 동안 온라인 공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직렬에 승진기회도 골고루 주어줘야 한다"면서 "이번 승진대상자 결정을 위한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늘어나면서도 전도성 유지, 물에도 젖지 않아

전북대 김서연 대학원생
차세대 전자회로 기관 개발
소프트로봇 등에 활용



김서연 대학원생



박성준 교수

전북대 김서연 대학원생(나노융합 공학과, 지도교수 박성준)이 늘어난 상태에서도 전도성이 유지되며, 물에 젖지 않는 전자회로 기관을 개발해 화제다. 이는 소프트로봇, 착용형 전자기기, 인공피부 등 미래형 전자소자에 활용된다. 이에 따르면 김 대학원생이 개발한 전자회로 기관은 200% 이상 늘어난 상태에서도 전도성을 유지하며, 물에 젖지 않고, 직접 손으로 그릴 수도 있다. 액체금속인 갈륨(녹는점 29.8℃)

과 자성임자인 철을 혼합해 유체의 성질과 전도성, 자성을 동시에 갖는 복합소재를 배합하고 이를 초음파 처리해 액체금속으로 코팅된 자성 입자를 개발한 것. 이에 해당 입자를 늘여나게 하는 플라스틱 기관에 코팅해 직접 펜으로 압력을 가하면 전자회로의 제작이 가능하다. 특히 제작된 회로는 200% 이상 늘어난 상태에서 전도성이 유지되고, 입자 표면

의 거칠기로 인해 물에 젖지 않게 된다. 김서연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는 기존 전자회로 기관에 적용된 고가의 반도체 공정을 대체하고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소자와 센서, 스마트 의류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원천기술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최신호에 게재됐다. 제저자인 김서연 대학원생은 개발된 소재와 기관을 활용한 센서와 유연 전자소자 응용연구를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22년도 한국 이공계 여성대학원생 미국 연수사업에 선정돼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연구 활동 중이다. /정은성 기자

인적·물적 자원 상호교류·지원

우석대, 조이·효사랑가족요양병원 등 4곳과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지난 28일 대학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주)조이·효사랑가족요양병원·효사랑전주요양병원·가족사랑요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오석흥 부총장과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 박진상 효사랑전주요양병원장 겸 (주)조이 대표이사, 김정연 효사랑가족요양병원장, 박진만 가족사랑요양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우석대는 산학협력단과 LINC 3.0 사업단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4개 기관과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의 협력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상 효사랑전주요양병원장 겸 (주)조이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의료발전과 서비스 투자사업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인적교류 등을 우석대학교와 모색해 비탄직한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오석흥 부총장은 "(주)조이와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가족사랑요양병원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의 협력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상 효사랑전주요양병원장 겸 (주)조이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의료발전과 서비스 투자사업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인적교류 등을 우석대학교와 모색해 비탄직한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자동차과 재학생 ICMC 공장 현장실습 후 채용

전주비전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현장실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과 학생 5명은 완주 봉동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 및 조립생산 기업인 (주)ICMC 1공장, 3공장에서 4주 간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주)ICMC 강원중 팀장은 "최근 인력난에 힘입어 하는 지역 기업의 입장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 투입돼 자동차의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채용 시에도 가점이 부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참여한 5명의 학생 중 취업에 성공한 백현중 학생은 "저를 비롯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주)ICMC 기업문화와 자동차 차체 조립직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실습생이 아닌 같은 동료로서 친절하고 체계적인 현장교육을 받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